

장흥군, 인구정책 결실 “6년 만에 증가세 전환”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5년간 1,320만원 지원

장흥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인구정책이 결실을 맺어 6년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장흥군은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3월말 34,319명으로 6년 3개월만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음을 알렸다. 장흥군은 노인인구가 45%나 차지하는 지역으로, 이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매월 출생아 수는 10명 안팎인 반면, 사망자는 60여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 졸업 시 도시로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도 인구감소의 주요

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장흥군은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2025년 3월말 전월 대비 인구가 8명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증가한 인구가 많진 않지만,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지표에서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만하다.

장흥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5년간 1,320만원(2년간 월30만원, 2~4년차까지 20만원, 5년차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8백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300만원~1,200만원 지원, 2025년도부터 1~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학교살리기를 통한 인구 유입도



주목할 부분이다.

장평중학교장은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학교를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학습분위기를 바꾸는 한편, 지역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기울어 가던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학교가 알

려지고 유학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군은 또한 주거지가 마땅치 않아 농촌 유학을 망설이고 있는 가정을 위해 농산 어촌유학마을 10세대를 조성했는데, 이곳에는 34명이 입주해 폐교 위기의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 '2025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나서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담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복지 향상, ▲일

상생활 불편 해소, ▲취업·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해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관심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7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다.

참여 희망자는 담양군청 누리집의 공모문을 참고해 전자우편(e-mail), 네이버 폼 또는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2명(각 30만 원), ▲장려상 4명(각 20만 원)을 선정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과 기업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담양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보성군, 고향사랑기금 활용 첫번째 사업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 사업 시작

보성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으로 '보성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고향사랑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만에 누적 모금액 7억 2천만 원을 돌파했고, 2024년 한 해 동안 3,044명의 기부로 3억 4천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 발전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지난해 주요 기금사업은 △이동식 무장애 경사로 설치,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소통 아카데미 운영,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확대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 △경로당 실버요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로당 실버요리 프로그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성군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해 전문 지도자의 음악 교육과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의 음악적 소양과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로당 실버요리 프로그램'은 보성군 관내 90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간식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기부자의 뜻이 주민들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성/김문기 기자

카메라 뉴스



구례군, 2025년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성료

구례군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일 총 6회에 걸쳐 '2025년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생 15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교육은 구례군민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범 샌드위치, 쌀밥 아란치니, 생크림 쌀스콘, 쌀 제누아즈 등 우리쌀을 활용한 요리 및 베이커리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실습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숙한 메뉴를 직접 만들어보며 우리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쌀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라며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면서 우리쌀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광군, 2025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심의위원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임대대상자선정 및 운영 농업발전 방안을 위해 '2025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 공모 계획서를 제출한 3개 법인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장기임대대상자 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더불어 2025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외부평가 대응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농작업 대행 사업, ▲농업기계 공모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콩과 대파 작목뿐만 아니라 타작목(고추 등 8대 주요작목)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김희수 진도군수, 보배섬 유채꽃 축제 현장 점검

김희수 진도군수는 7일(월) 보배섬 유채꽃 축제 준비 사항 점검을 위해 관매도를 방문했다.

보배섬 유채꽃 축제는 조도면 관매도에서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메! 관매도에 봄 왔어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보배섬 유채꽃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보배섬 유채꽃 축제는 지난해 9개소에서 축제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주무대를 변경해 관매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